

암보다 더 무서운 결핵

글: 홍영숙(독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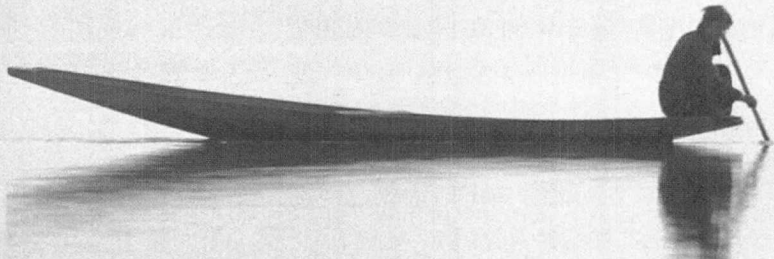
계속되는 기침과 미열로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의사는 목이 부었다며 감기약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전혀 나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처음엔 그냥 심한 감기에 걸렸구나 생각하였다.

4개월 후 회사에서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에서 폐결핵진단을 받았다. 말로만 듣던 결핵을 내가 앓게 된 것이다.

결핵, 듣기는 했어도 어떤 병인지 잘 알지 못했다. 폐결핵이라니까 말 그대로 폐에 조금 이상이 생긴 것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처럼 힘겹고 무서운 병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담당의사의 권유로 CT촬영을 하니 폐결핵이 확실하다고 해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병원에 곧바로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결핵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일종의 전염병이라는 사실도 그때서야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입원실도 일반실과 격리되어 1인실을 사용하게 되었고, 2주일간의 약물치



료로 전염력은 사라져 회사에 복귀하게 되었다. 결핵은 6개월 정도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된다고 하여 퇴원후에도 계속 약을 먹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았다. '약을 먹다가 중간에 끊으면 약으로도 잘 낫지 않는 결핵균이 자라난다, 그때는 수술을 해야 한다' 는 의사의 말을 돼새기며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챙겨먹었다.

6개월 후 약으로부터 해방되던 날, 병이 다 나았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흥가분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얼마 후부터 등쪽에 통증이 느껴졌다. 평소 한쪽 팔로만 운전하는 습관이 있어서, 단순히 그 때문이려니 생각하여 한 달간 헬스를 끊었다. 운동부족인 탓도 있을 거라며 스스로 진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고 통증은 더욱 더 심해졌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의사와 상담을 해도 별 이상이 없다는 말만을 들을 뿐이었다. 그렇게 3개월 후, 통증이 있던 등쪽에 혹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다. 동네 병원을 찾아가 초음파검사와 엑스레이검사를 하였고, 의사는 큰 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해보는 게 확실하겠지만 아무래도 결핵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결핵이 폐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뼈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장기에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때 처음 들었다.

의사 소견대로 바로 CT촬영을 하기 위해 처음 결핵을 치료했던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 결핵이 등쪽으로 재발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됐을 거라 굳게 믿었던 결핵이 재발하다니,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이 너무 무섭고 절망적으로 들렸다.

의사의 소견서를 들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날짜를 잡았다. 수술날짜만 기다리며 입원실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다. 결핵균이 침범한 등쪽 갈비뼈 2개를 잘라내는 큰 수술, 그 후 6개월의 약 복용 등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아픔이었다.

현재는 약 복용을 마친 상태이고 건강상태도 양호하다. 그러나 언제든 결핵이 재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마음 한 켠에 안고 산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 결핵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다. †